

도와주십시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흑색선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도덕한 선거운동을
 감시해 주십시오

▲11대 총선 당시 캠페인 모습



46년 8월 5일생(당50세)
 진영국민학교-중학교 졸업
 부산상고(53회) 졸업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YMCA 이사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
 공해문제연구소 이사

민주정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6월항쟁)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 동구)
 국회 5공비리조사특별위원(청문회)
 민주당 최고위원
 (현) 민주당 부총재
 (현) 민주당 부산광역시지부장-동구지구당 위원장
 (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현)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이사장

그러나, 산업인력을 선거판으로 끌어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도와 주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저를 도와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선거에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팩스와 컴퓨터통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합리적인 선거방식, 함께 참여해서
 활기찬 정치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노무현과 함께 새로운 선거운동을!

1. 자원봉사 문의전화: 051-466-0091
2. 자동응답시스템: 051-466-8765
3. 팩시밀리: 051-463-8828
4. 컴퓨터 통신: 하이텔 ID myno
 천리안 ID myno
 나우컴 ID my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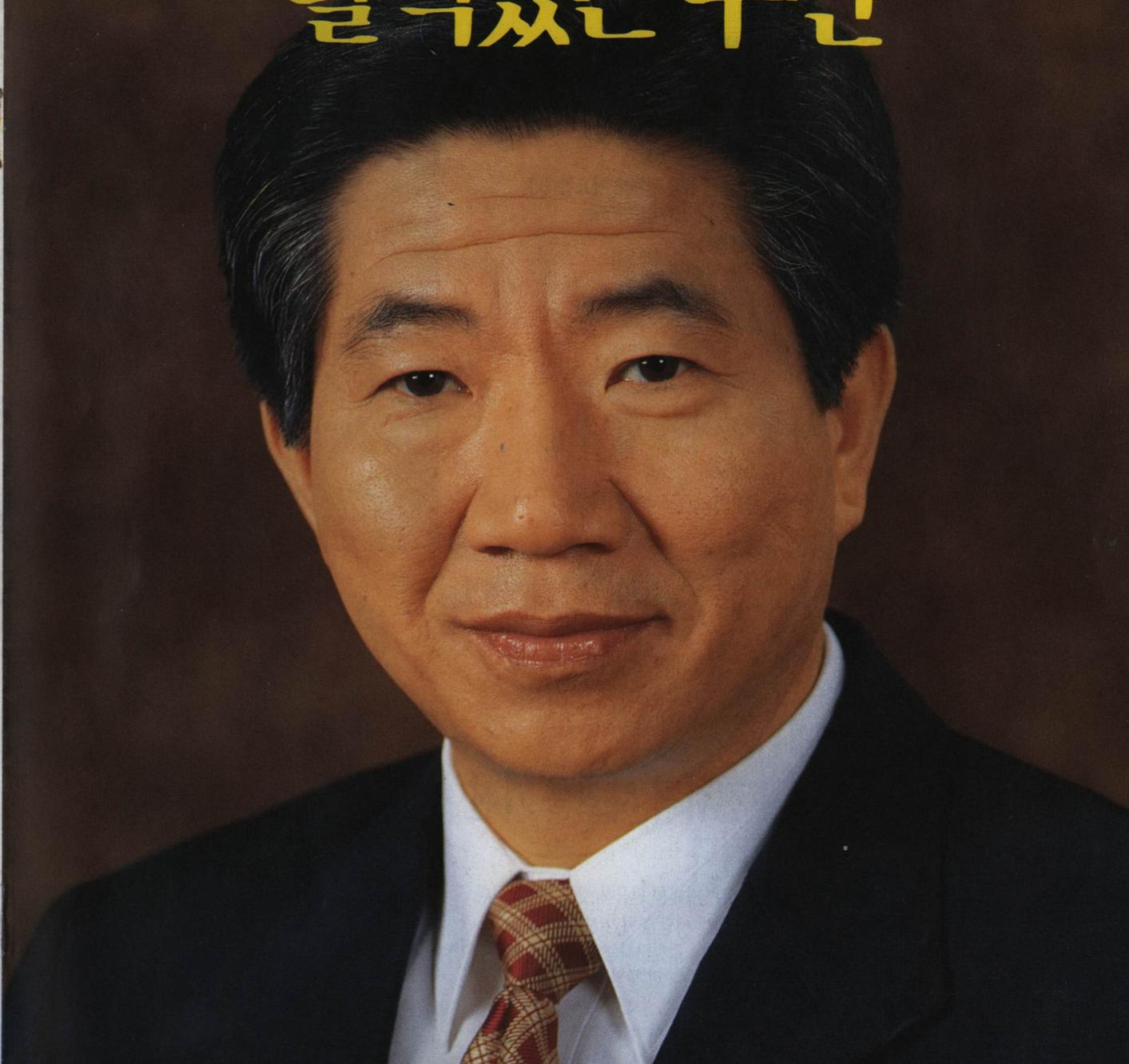
민주당 노무현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 본부

●우편번호 601-032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 2동 1-61 통일빌딩 5층
 ●안내 및 부정선거 고발: (051)441-2226-8 ●팩스: (051)441-2229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
 ●제작자: 후보자 노무현(민주당)
 ●인쇄소: 인출연(주) 부산광역시 중랑동 4가 37-5, 전화/469-8509

43224

소신있는 시장 활력있는 부산



기호 2 민주당 노무현

선택 1 소신과 배짱, 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은 안됩니다. 부산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고 시키는대로만 하는 사람이 부산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 30년 눈치 행정이 지방 살림을 망쳤습니다. 때문에 지방시대의 시장은 중앙정부에 당당히 맞서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당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건 하고 관찰할 것은 관찰해야 합니다.

선택 2 능력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행정 조직을 통솔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 전체 조직을 통괄하고 효율적으로 조직할 능력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과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을 집행합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행정은 부정과 부패, 대형사고를 불러옵니다.
-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부산을 달라지게 할 순 없습니다. 결단과 추진력으로 행정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킬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택 3 창조적 능력과 진취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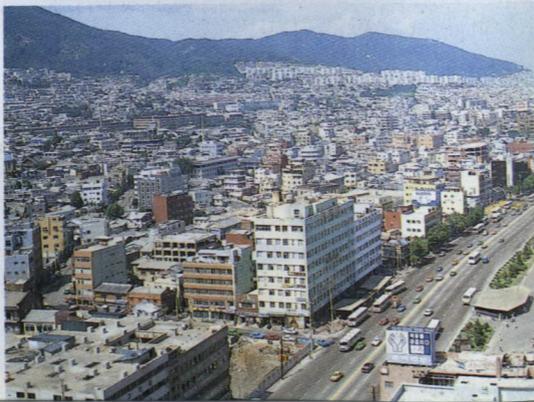
- 새 시장은 길들여진 행정의 낡은 병폐를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힘센 사람 눈치만 보고, 상대에 따라 법을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하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할 일은 안하고 세금이나 축내는 무사안일주의. 이제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민선 시장은 개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새 시장은 부산시 살림을 일류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한정된 권한과 예산으로 이 일을 해내려면 행정에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부산시장은 진취적 사고와 창조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선거,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이번 선거는 여당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부산살림을 맡을 우리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 중요한 일꾼을 당(黨)만보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 추천한다고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명된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 - 인물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산은 우리가 뽑은 민선시장을 원합니다.





노무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이건 어김없이 해냈습니다

1 시작한 일은 모두 잘 해냈습니다.

- 고졸학력으로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 판사경험은 짧았지만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았습니다.
- 정치경험은 짧았지만 조선의원으로 3,4선 의원을 놀라게 한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 그리고 청문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 조선의원이었지만 국회에 공부하고 노력하는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 제1야당의 최고위원에 도전했을 때, 남들은 모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정치 입문 5년만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제1야당의 부총재, 부산시지부장, 지구당위원장, 서울과 부산의 정책연구소 소장파 이사장이라는 1인 3역, 1인 5역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은 신화를 창조합니다.
- 남들이 안된다고 말할 때, 어렵다고 뒷걸음칠 때 그는 달려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2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 21세기는 정보통신시대라고 말합니다.
- 노무현은 정보화시대를 앞서는 정치인입니다.



- 1년여에 걸쳐 그는 정치와 행정을 정보화, 과학화로 이끌어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했습니다.
- 그리고 모든 정치인의 정치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A4 용지로 한 박스에 달하는 그의 컴퓨터 시스템 설계도면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합니다.
- 부산시 행정도 정치도 정보화시대를 앞서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정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작한 그의 컴퓨터 정보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부산시정에 그대로 적용되기 위해 수정되고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시대
-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노무현이 준비합니다.

3 지방자치시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 지방화, 분권화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정치인.
- 남들이 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형편없다며 지방자치에 대해 무관심할 때, 그는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93년 9월 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창립
- 94년 4월 부산지역정책연구소 창립이 바로 그것입니다.
- 정치, 행정 개혁을 이끌어갈 노무현의 지방자치 군단
- 노무현이 이끄는 서울과 부산의 연구소 회원은 모두 1,875명
- 여, 아들 떠나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함께하고 있는 의원은 모두 245명
- 회원 중 95년 지방자치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출마자는 모두 527명
- 지방자치시대를 같이 준비하고자 함께하는 교수진 170여명
- 객원 연구원을 포함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모두 57명
- 노무현의 이 군단이 지방자치시대의 정치와 행정을 개혁할 것입니다.

4 이미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국제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독일: 에버트 재단과 협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에버트 재단과 합동으로 각종 연수와 연구사업을 진행.

1994년 12월과 1995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독일 본에서 합동 연수, 연구활동 전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21세기 지방자치 실무 강좌]를 개설, 모두 180명에 이르는 '95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출마자들을 배출.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과 협력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단체 경영 혁신 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델라웨어주 이곳에 있는 델라웨어 주립대학과 공동으로 합동 연수,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1995년 3월 제1차 미국 현지 연구, 연수를 완료.

일본: 지방자치종합연구소와 협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들이 모여서 만든 최대의 연구소와 공동 협력 사업 진행.

1995년 4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지방자치시대의 한일 협력 방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

향후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개혁을 위해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ICMA(국제도시경영자협의회) 가입 추진

ICMA는 지방자치를 일찍부터 정착시킨 선진 외국의 각 시장들이 도시 경영 혁신을 위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연구하는 국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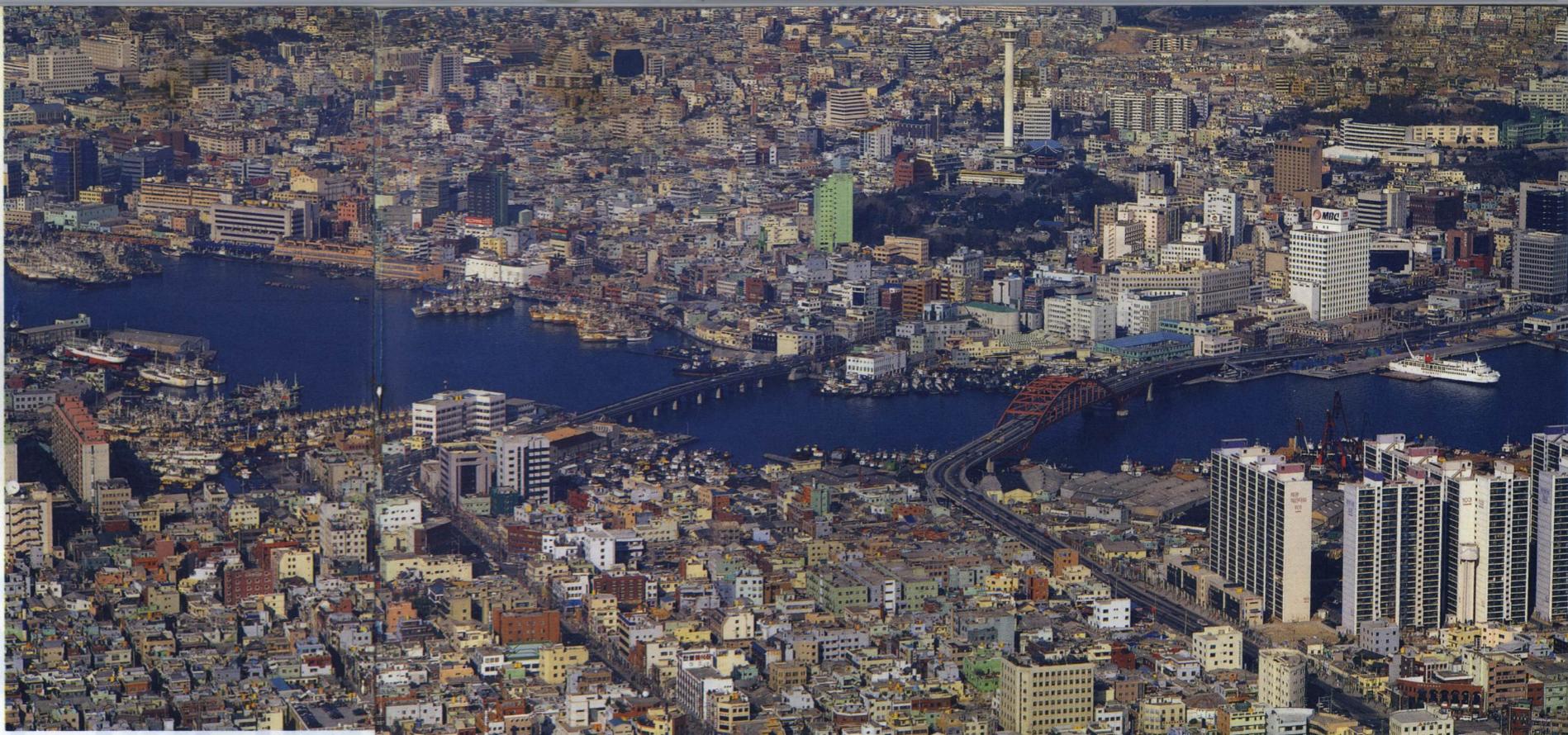
현재 국내에는 이렇다 할 ICMA 활동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활동이 될 것임.

노무현이 약속드리는 시정 5대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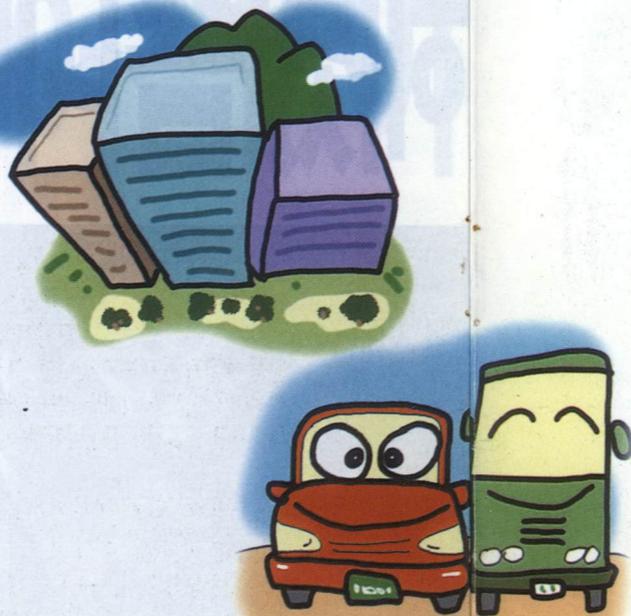
- 1 깨끗한 행정**
시민의 세금이 도둑질 당하고 정당한 행정 절차에 급행료로 돈봉투가 오가는 그런 행정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폭발이나 기우뚱아파트같은 사고도 사라지고 세금은 절약될 것입니다.
- 2 참여하는 행정**
실질적이며 전면적인 행정의 공개로 시민들이 행정을 알고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부산시민이 부산시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 3 서민위주의 행정**
저는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되면, 고지대와 산동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곳에 행정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두겠습니다.
- 4 실속있는 행정**
지난 시절의 행정은 전시행정, 졸속행정, 형식행정, 권위행정으로 표현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과 인기엔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실천해내는 실속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5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
지금껏 부산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있는 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욕을 먹는 일이 있더라도 후손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노무현이 펼치는 시정의 3대 목표

- 1 잘사는 부산**
부산 경제를 성장시켜 온 핵심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산업도 키워겠습니다.
- 2 복지 부산**
도시 인구만 한국 제2의 도시일 뿐 우리 부산시민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삶의 조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시민 생활의 기본적 조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보장, 쾌적하고 문화적인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의 기반을 우리 부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 3 아름다운 부산**
아름답고 푸른 바다, 자랑스러운 문화의 도시 - 부산 황폐화된 부산의 옛 정취를 살려내고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 부산 시민의 이런 긍지와 자랑을 더욱 알차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부산, 이렇게 가꾸겠습니다!

-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대구가스 폭발 -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개선과 깨끗한 환경, 책임지는 행정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 ▶ **교통문제 -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출퇴근길이 하루의 보람을 빼앗는 고통길입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교통문제, 그리고 주차난 -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자들의 이권에 발목이 잡히지만 않아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끈기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 ▶ **수도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부산의 수도물 - 수질오염, 심지어 바다오염 등,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시업을 맞이 하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먼 훗날의 화려한 청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행정이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 **돈을 아껴 쓰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돈을 늘이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면 예산 10%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풍토를 만들면,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급식학교를 확대하여 아이들과 어머니를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 ▶ **21세기부산, 사회복지를 꽃피우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노인을 위한 휴식과 의료시설 등은 우리 부산이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기반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